

번호: OP-G-006					
제 목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용 조사 Healthcare Cost of Families with the Disabled in Seoul				
저 자 및 소 속	김부경1), 이진용1), 박종혁1), 은상준1), 김윤1), 김용익1), 신영수1)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Bu Kyung Kim1), Jin Yong Lee1), Jong Hyock Park1), Sang Jun Eun1), Yoon Kim1), Yong-Ik Kim1), Youngsoo Shin1) 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분 야	의료관리 [장애인]	발 표 자	김부경 전공의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은 낮은 데 반하여 의료비용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장애인이 의료이용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장벽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용 지출을 조사하고, 이를 서울시 가구 평균과 비교하여 장애인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더 부담하고 있는 보건의료비용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유형과 중증도가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p> <p>방법: 2003년말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을 장애중증도(중증: 1-3등급, 경증: 4-6등급)에 따라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층화계통추출방법을 통해 323명(지체 140명, 뇌병변 62명, 시각 60명, 청각 6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접조사원이 해당 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의 조사항목은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로 구성하였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보건의료비용 지출액을 2005년 1/4분기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서울시 가구의 평균과 비교하였다.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용을 장애인 본인의 보건의료비용과 그 밖의 가족구성원의 보건의료비용으로 나누어 보았고, 장애인 본인의 보건의료비용 중 장애와 관련한 비용 조사하였다. 장애유형과 장애중증도에 따라 보건의료비 지출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시행하였다.</p> <p>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46,214원으로, 서울시 가구의 월 평균 소득 3,327,392원의 34%에 불과하였다. 반면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236,507원으로, 서울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110,450원)의 2배가 넘었고, 월평균 소득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서울시 가구의 3.4%에 비하여 6배 이상에 달했다.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가운데 장애인 본인의 보건의료비용이 55%(130,099원)를 차지하였고, 그 중 30%는 장애로 인한 것이었다.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보건의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청각장애에서 장애인 본인 보건의료비용이 가장 높았고, 월평균 소득의 17%에 해당하는 190,765원을 지출하였다. 장애와 관련한 보건의료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로, 월 평균 소득의 5%에 해당하는 54,833원을 지출하였다. 장애중증도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보건의료비용과 장애관련 보건의료비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장애관련 비용 중 의약품 비용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결론: 서울시 장애인 가구는 서울시 가구에 비해 소득에 대비한 보건의료비용이 6배이상 높았다. 그 중 장애인 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이상이었다.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일반인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용을 일반인 수준으로 낮추어주어야 한다.</p>					